

오피니언

기고



윤진보

전남의 미래도시, 이렇게 디자인한다

편 초래, 생태계 훼손, 지방다운 특색과 공동체를 비롯한 문화적 가치 상실 등 숏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미래의 도시 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지역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개념을 근대도시계획에서 현대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하며 평면확장 우선에서 환경과 사람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신도시개발 위주에서 기존 시가지의 재활용, 사회경제적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의 반영과 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던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속가

능한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공간구조·공간형태로의 압축형 도시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확산형 도시계획을 지양하면서 교외부 난개발 방지와 중심성이 낮은 도시의 개발, 자동차우주의 도로망 개설 탈피 등 새롭고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다.

셋째,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주거·상업·준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 조정 등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수립이고 넷째, 은퇴자 도시 및 관광지 개발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준비다. 끝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계획관련 변화상과 전남 도시권 발전방향에 따른 미래 토지이용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다운조닝화하고,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향조정 등 법적절차와 주민 합의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현실성 있게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밀도를 낮추면서 교외로 확산된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도심으로 집약하여 주거·상업·비즈니스 등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 내 시군 도시계획은 1970년대 초반 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배분함으로써 계획 수정시 재산 등 경제적 손실로 인해 주민 불만과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로 의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도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협조와 도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전남도 건설발전재국장>

중고칼럼



강상원

우물을 파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먹먹한 감동이 밀려왔다.

친구의 병마 소식은 처음 나에게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친구의 죽음은 물론 사형으로 푸른 하늘, 돌맹이 하나에도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친구의 모습은, 무슨 말로든 위로를 하려는 나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친구가 보여준 삶은 나에게 위대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내가 목사이다 보니 그 친구의 감사와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여령)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病)속에는 종교의 광택이 묻혀 있다. 병상은 좁지만 그 위에 누워서 생각하

는 세계는 넓고 크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만났을 때 불인과 두려움으로 다른 이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통해 영혼을 생각하고 절대자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통찰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 날마다 생수가 솟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친구는 병을 통해 자신이 절대자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건강할 때 자신을 채웠던 세상 것들을 비우고 또 비워내며 그 자리에 절대자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으니 날마다 기쁨과 행복의 생수가 솟아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인문학계의 큰 거목이자,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이여령씨(전 문화부

장관)는 몇 년 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신앙인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다닌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고 난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물을 찾았다고 오늘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진리의 우물을 판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것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다. 지하수에는 건수와 생수 두 가지가 있다. 건수는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수맥에 연결되지 못해 기온 차이나 가뭄에 쉽게 증발해 없어지는 반면, 생수는 땅속 깊은 수맥에 연결되어 있어 기온차이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우물을 판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만나기를 소망해 본다. 내 친구처럼, 이여령 씨처럼... <새빛교회 담임목사>

기고



나영옥

학교체육과 올림픽

1억 4000만원, 캐나다 1억 1000만원, 중국 90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각각의 금메달 포상금은 국가차원의 기본포상이고, 일부 인기종목 메달리스트들은 광고 및 협찬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선수는 100억원대 광고수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서 전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산업 수준까지 이르렀다.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선진국과 같은 선수 양성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 배출은 우리나라와 다른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미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충실한 학교체육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대다수 고등학교의 정규수업은 오전 8시 10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 40분쯤에 끝난다. 정규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즐기는데 매학기(학년별 3학기) 마다 다른 종목의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별로 1부 대표선수(Senior Varsity)와 2부 대표선수(Junior Varsity)로 나누어 2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 1부로 승격해 학교 대표 선수가 된다. 또 시 지역에서 1위를 하면 시 대표, 주에서 1위를 하면 주 대표, 전 미국에서 1위를 하면 국가대표가 된다. 학교 대표 선수를 지낸 학생들은 미국의 명문대학 입학 시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평가,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평생 스포츠를 생활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체육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교과부의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체육수업은 아예 선택과목으로 전환된다. 이는 체육활동을 통해 정상발육을 도모하고 평생 운동하는 태도와 습관을 갖춰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학생들의 체력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운동 선수들은 학생일지라도 마치 직업선수처럼 운동만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운동에 올인한다. 학생 때부터 이미 체육기능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엘리트 체육’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라는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스포츠 선진강국처럼 우리도 이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스포츠인 양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내지 못하고 은메달도 머물거나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표정을 짓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적인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행하도록 하고 그저 따라하는 가운데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림픽 영웅들이 배출되는 과정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야 하며 그 첫 번째 출발은 학교체육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공부벌레나 운동기계를 양성하는 질투발이 교육이 아닌 심신이 조화로운 학생을 양성하도록 하는 교육풍토가 아쉽다.

<광주 동신여고 교사·체육학 박사>

대한민국이 지구촌 최대 축제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대한민국이 매년 13개의 금메달 중 우리 지역 출신 양궁 2관왕 기보배(광주여대·광주광역시청)와 체조 도마부분 금메달 양학선(광주체육고·한체대)은 범국민적 관심과 인기가 연일 화제가 되며 운동하는 청소년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올림픽 메달은 국민의 자부심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헌하기 때문에 각국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고 사기진작을 하고 있다. 런던올림픽 경우 아르메니아 8억원, 말레이시아 7억원, 이탈리아 2억원, 러시아 1억 5000만원, 필리핀

새로 발견된 무인도 무분별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무인도는 얼마나 될까? 작년에 무인도를 900여 개를 새로 찾아서 지금은 2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무인도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제대로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개발을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섬에 리조트와 골프장은 물론, 호텔과 수중 생태공원, 해양스포츠 시설 같은 걸 만드는 것이다.

모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인도라 해서 무작정 개발만 하는 게 능사인지, 또한 환경파괴는 없는 것인지, 감시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일전에 TV에서 보도된 ‘레즈비언

갈매기’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학자가 갈매기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알컷들끼리 짝짓기를 하는 갈매기들이 유독 많았다. 그리고 수컷은 짝짓기에 대한 의욕을 상실, 자포자기 상태였다.

왜 그런 걸까? 왜 레즈비언 갈매기들이 늘고 있는 걸까? 무엇이 수컷 갈매기들의 생식 능력을 방해하는 걸까?

그리고 연구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갈매기 몸이 과다 축적된 환경호르몬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 내어 갈매기의 생식능력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갈매기의 생식을 방해하는 이 물질은 오래전에 살포된 농약에 있었다.

섬에는 각종 갈매기와 새, 수생식물과 육상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것이다. 수년간

인간의 때를 타지 않은 채 평화롭게 지내 온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무인도를 찾아내 위탁시설을 짓고 각종 해양스포츠 레저시설, 호텔을 짓는 일도 이런 환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개발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무작정 죄다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놔두는 것

보다 악영향이 큰 건 불분명하다.

어차피 무인도로 있던 섬, 정발 우리 국토에서 이면지런 때를 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자연환경이니 무작정 개발의 삽을 들고 파헤칠 게 아니라 새로 발견되는 무인도들은 그냥 놔두고 개발을 제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형·광주시 북구 생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의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수교 20년’ 중국, 지역 발전 전진기지로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 명을 넘어섰다.

63억8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도 지난해 2천206억 달러로 35배나 늘어났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의 4위 교역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인프라가 좋은 광주·전남의 무역 및 관광객 유치 등 대중국 역량은 매우 저조하다. 광주·전남은 무안국제공항, 광양컨테이너부두, 목포항·여수항 등 교역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지만 취약한 무역구조로 한국 전체 교역량에서는 미미하게 짝이 없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 규모는 전체의 9.5%에 불과하다. 전남의 수출은 지난해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수출품목 중 여수산단 생산품이 90%에 달하는 등 대중국 수출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설상가상, 양국은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협정이 개시되면 양국은 동북아 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 이면에 ‘전남 농촌 붕괴’라는 그림자도 자리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면 전남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업인에 직격탄이 될 것은 뻔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동중국 연안과 근접해 있고 인프라가 뒤지지 않음에도 수출·관광 면 등 실적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향후 10년, 100년 미래를 담보할 기회 선점을 위해 광주와 전남도는 스스로 대중국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도 지적 지점을 고려하는 등 기획의 땅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중국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

근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문화콘텐츠 발굴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들을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는 도시의 품격도 높이고 관광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일부 지자체들은 특산물, 역사적 인물 등을 놓고 지역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영권권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예술가들을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광주에는 한국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이라는 천재의 문화자원을 상품화 하기는커녕 사장시키고 있다. 광주에서 오 화백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부터 1982년 타계할 때까지 근 30년동안 창작촌을 불태운 지산동 초가(1986년 광주시 기념물 제6호)가 유일하다. 물론 광주시립미술관에 8점이 소장돼 있지만 상설전시관이 없어 평상시엔 그의 작품을 거의 감상할 수 없다. 고향인 화순군이 지난 2005년 동북면에 건립한 오지호 기념관 역시 소장품 51점 가운데 진품은 1점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근대 서양화의 선구자인 오 화백은 글로벌 문화브랜드로서 상품가치가 높다. 따라서 현재 8점에 불과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오지호 소장품을 늘리는 동시에 상설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오지호 컬렉션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차체에 광주시는 국립 현대미술관 수장고에서 잠들어 있는 오지호 화백의 유작들을 영구임대해 광주로 가져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증 당시 상설전시관 건립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만큼 오 화백의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 배출한 거장을 문화브랜드로 키우지 못한다는 건 광주의 수치다.

無等鼓

주력산업이 달라지고 청년층의 직업 선택 기준이 바뀌면서 대학 인기가학과도 달라져 왔다. 농업이 곧 국부였던 1950년대에는 농대가 최고 인기학과였고 6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과 식량자급에 필요한 비료산업을 육성하면서 섬유공학과와 화학공학과에 인기가 몰렸다.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투자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기계공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인기학과로 급부상했다. 80년대는 삼성그룹이 반도체에 본격 투자하면서 전자공학과가 최고 인기학과로 자리 매김했다. 당시 서울대 입시사정표에는 전자공학과가 가장 상위였다.

90년대 들어서면 IT 열풍으로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에 인재들이 몰렸다. 90년대 배치표에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의예과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카이스트도 전국 대부분의 예과보다 높았다.

이같은 학과 서열은 90년대 후반의 환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됐다. 대

기업들이 자본집약적 설비투자로 전환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좋은 의대 전성시대를 열었다.

대학 인기가학과와 직업의 선호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산업이 주력업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업과 학과의 인기도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1위 조선(造船)국가로 올라선 1990년대 후반 서울대 조선학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IMF직후인 1998~2001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7~2008년에도 반짝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최근 마감한 수시모집에서 처음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학과 미달 쇼크



1960~80년대 세계 열풍으로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에 인재들이 몰렸다. 90년대 배치표에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의예과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포스텍(포항공대)과 카이스트도 전국 대부분의 예과보다 높았다.

이같은 학과 서열은 90년대 후반의 환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됐다. 대

조선업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이 90년대 들어 도교대 선박공학과에 인기가 떨어지자 우리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점에서 서울대 조선학과 미달쇼크가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 인기학과의 변천사는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정국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